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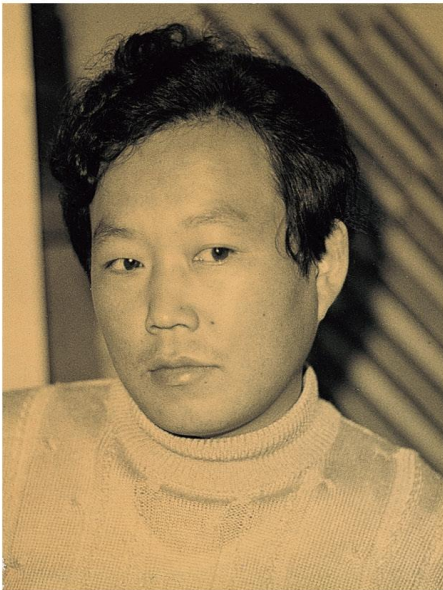
# Seungjio Lee

과묵한 청년 화가 시절의 이승조는 어느 날 거처에 몸을 실었다. 때는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 중이던 당시, 창밖으로 상냥함처럼 높다랗게 솟은 고층 빌딩과 세월소 굴뚝이 빨리 감기 하듯 스쳐 지나갔다. 온살같은 속도에 의해 어찌던 한층의 색미, 원통형 파이프를 보았을 도시 풍경들. 그때 이승조는 불현듯 한 생각에 몰두했다. 1962년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승조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차 여행 중이었다. 눈을 감고 잠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얼핏 무언가 망막 속을 스쳐 가는 게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즉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를 밤을 꼬박 새워 당시 뇌리에 깊게 새겨진 이미지를 캔버스 위로 옮겼다. 그러곤 말했다. "오늘의 파이프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1960년대 한국 화단에 등장해 30년 가까이 활동해온 고 이승조(1941~1990) 작가는 흔히 '파이프 작가'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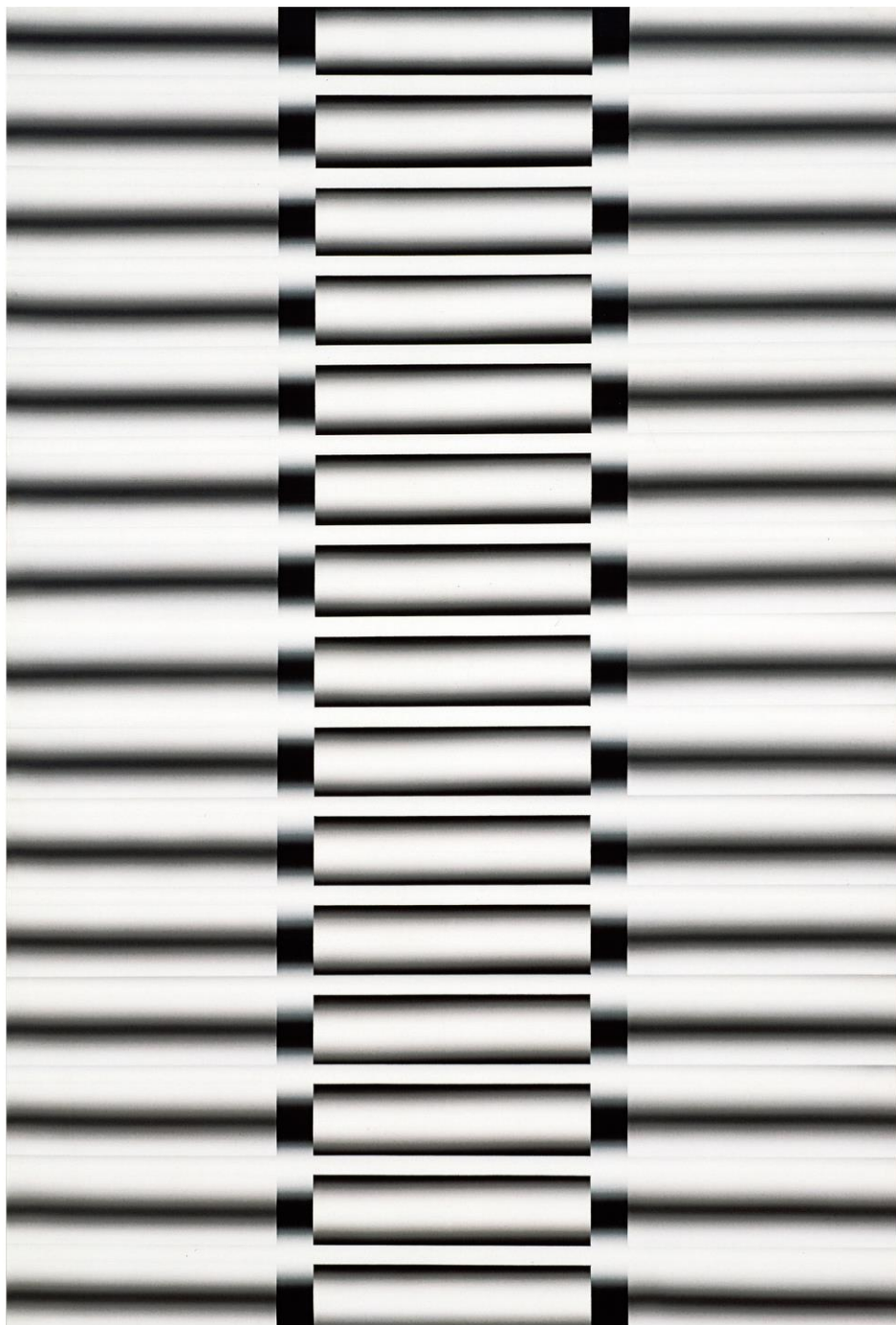
이는 캔버스를 가득 메운 수직, 수평의 금속성 원통 형상으로부터 얻어진 칭호다. 생전의 이승조는 '파이프 작가'란 칭호에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은 듯했으나, 그가 원하던 원치 않은 관객은 그의 작품에서 파이프를 읽어냈다. 한편 오늘날 그의 그림을 보면 질서정연하고 서늘 푸른 빛을 띠는 원통의 형상들은 파이프라기보다 오히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세련된 기하학적 패턴으로도 보인다.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탄생했지만, 오묘한 모더니티가 숨 쉬고 있는 셈이다. 한국 기하추상의 역사에 눈 밝은 이들은 이승조 작업의 탁월함을 일찍이 알고 있었겠지만, 일반 관객이 그의 예술 세계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제작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의 작고 30주기를 맞아 개최한 회고전 〈이승조 : 도열하는 기둥〉에서 일 것이다. 당시 전시는 이승조가 쌓아 올린 기하추상의 진취성을 펼쳐 보이며 그간 그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단색화 계열 화가들에 비해 다소 덜 알려진 이승조 고유의 예술 세계를 소개했다. 지난 〈이승조 : 도열하는 기둥〉이 그의 작업을 연대기별로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오는 9월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은 1970~80년대 그가 배진한 검은 화면의 후기 '벽' 연작을 대거 살필 수 있는 기회다. 나아가 그의 작품을 프리즈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 지금이 이승조의 세계에 더 깊숙이 진입하는 절호의 타이밍인 셈이다.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처음으로 국내에 상륙하는 만큼, 한국적 기하추상을 선도한 이승조의 수작을 국내외 미술 애호가 및 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승조라는 작가는 그간 국내외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미술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이런 보석을 발굴하고 알리는 일이어야 할 갤러리의 역할이지요." 국제갤러리 관계자의 말이다.

이승조가 화단에 등장한 대한민국의 1960년대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1964년 주겨용 고밀도 건축의 시조라 불리는 마포아파트가 서울 도화봉에 들어섰고, 1968년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했다. 또 1969년, 바다 건너 미국에선 사람을 우주선에 실어 달로 보냈다는 뉴스가 들려오던 기이한 시대였다. 어쩌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문명의 속도, 한국 산업사의 정황은 고스란히 이승조의 예술 세계에 거세게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그러한 시대에 떠난 가차 여행에서 이승조는 창밖의 도시 풍경이 빠른 속도에 의해 '빛'으로 소급되는 현상을 마주했다. 1966년 〈제12회 현대작가 초대전〉에서 발표한 초기작 '벽 10'은 당시의 강렬한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데, 작품에선 빨강, 파랑, 노랑 등의 경쾌한 색미가 수직으로 캔버스를 가로질렀다. 부드러운 붓이 아닌, 마치 버린 칼로 그른 듯한 수직의 색미는 어쩔지 속도



생전의 이승조는 '파이프 작가'라 불렸다. 캔버스에 규칙적으로 배치한 금속성 원통의 모티프들은 그가 살았던 1960~80년대 산업화 현상의 파이프를 연상시켰다. 한국 기하추상 역사에 불을 지핀 화가 이승조의 작품을 이번 프리즈 서울 및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반세기 전 탄생했으나 놀랍도록 모더니티가 살아 숨 쉬는 회화, 그가 펼친 예술 세계에 성큼 걸어들어갈 기회다.

© 1988/1990, by BB-9E, Inc.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OF THE ARTISTS ESTE AND HUNDE GALLERY, 0511 1881 1000/1011



작품 '백 88-19', 광속성 원통형 파이프의  
형상이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백 88-19'(1988)  
195×132, 3cm.





